

“북에 있는 남동생 더 늦기전에 만나고 싶어”

이산가족 광주 박영숙 할머니의 설날

북한 예술단 공연 보니 고향 생각 더욱 간절해
통일되면 북한서 살려고 함경도 출신 남편 만나
평창올림픽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물꼬 트이길

“북에 있는 남동생을 만나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박영숙(82·광주시 남구 봉선동) 할머니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남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꼭 평양에 와 달라”고 초청,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할머니는 남부 화해무드 조성되면 이산가족 상봉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오전에 기자를 맞이한 박 할머니는 대화 도중에도 안방에 있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북한 공연단의 연주 모습과 ‘평양 초청’ 소식이 속보로 전달되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평창 올림픽을 맞아 남한을 찾은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연주를 보는 것 만도 감격스러운데 북측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할 줄은 몰랐다”며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이 북에 두고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할머니는 “TV에서 북한노래를 들으니 67년 전 고향에서 헤어져 어머니와 남동생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양하면이다. ‘북청물장수’로 알려진 바로 그 마을이다. 북청군 출신이 서울로

내려와 물장수를 시작했다는 것에서 비롯된 별칭이다.

박 할머니 집안은 명태 덕장을 운영한 덕분에 생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탄탄대로였던 그의 인생은 1951년 1월 4일 1·4 후퇴로 가시밭길이 됐다. 이 무렵 15살이던 박 할머니는 중공군에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아버지와 사촌 오빠의 손을 잡고 보따리에 귀중품만 챙겨 피난 길에 올랐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집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 남았다.

박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일주일만 있다 다시 올라올게요”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 이것이 박 할머니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놓은 이후 북청에서 100명 남짓이 겨우 탈수 있는 목선(뚝탄배)을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 고성, 속초, 부산, 거제도를 거친 한 달간 일정 끝에 포항 구룡포에 정착했다.

당시 박 할머니는 ‘나중에 이북 가서 살려면 이북사람과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때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함흥이 고향인 남편을 만나 20살에 결혼했다. 이후 남편이 살고 있던 광주로 무작정 내려와 양동시장에서 의류 장사와 식당을 운영해 4남1녀의 자식을 키웠다.

힘겨운 삶의 주름이 퍼지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졌다.

북에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찾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번번이 탈락했다. 탈락에도 모



함경남도가 고향인 박영숙(82) 할머니가 지난 11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신의 집에서 67년이 넘도록 밟지 못한 고향땅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

두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10년 전에 정부를 통해 들었다”면서 “아직까지 동생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고향 생각이 간절했던 박 할머니는 한때 활발하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을 2000년과 2007년에 걸쳐 2차례 다녀왔다.

박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최정상에 올라가 내다본 원산해수욕장의 풍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고향이 그리운 마음에 약삭같이 힘을 내 금강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회상했다.

요즘 박 할머니는 고향과 어머니가 생각날 때 마다 광주시 북구 청옥동 망향동산

을 찾는다. 이곳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랑민이 잠들어 있는 공간이다.

박 할머니는 “실랑민 1세대 분들은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자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해 대기중인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수는 모두 1365명(광주 546명·전남 819명)이다. 지난 1988년부터 전국에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수는 13만1344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7만2762명에 이른다. 생존자는 5만8685명에 불과하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0 해질 18:13
달출 06:12 달몰 16:45

화창한 귀향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크고 파도 높겠다.

지역별 날씨 (°C)	오전	오후	
광주	0/13	보성	-3/12
목포	3/10	순천	-1/14
여수	3/13	영광	1/10
나주	-3/12	진도	2/11
완도	4/13	진주	1/11
구례	-5/12	군산	0/10
강진	-1/13	남원	-4/12
해남	0/12	축산도	5/11
장성	-3/11		

◇바다 날씨

방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5~3.0

◇생활지수

지수	상태
니출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36	01:02
	19:19	13:53
여수	02:14	08:53
	14:55	20:45

◇주간 날씨

날짜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날씨	☁	☀	☀	☀	☀	☀	☀
기온	-1/7	-1/10	-3/8	-3/8	0/8	-2/6	-3/6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최대 33% 인하

교육부 심의회서 의결

쪽수도 20% 이상 줄어

다음달부터 바뀌는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기존보다 권당 최소 14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내린다. 교육부는 13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2018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교과서와 교과목,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과 출판사가 제시한 희망가격을 바탕으로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현안대책위원회, 18개 개별 출판사와 병행 협상을 벌여 가격에 합의했다.

이번에 새로 발행되는 검정교과서는 58책 413종이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3~4학년은 음악·미술·체육·영어 과목에서 새 검정교과서(8책)를 쓴다. 평균가격은 권당 평균 4397원으로 2017년 검정교과서 대비 141원(3%) 인하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검정교과서(18책)의 평균가격이 5945원으로 2933원(33%) 내렸다. 고등학교 신간은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 같은 공통과목과, 수학 I·II를 포함한 선택과목 등 27책이다. 평균가격은 권당 7277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382원(16%) 낮아졌다. 교육부는 새 교과서 쪽수가 기존보다 평균 20%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윤성원 광주지법원장 취임

“공정한 사법 행정” “좋은 법원 만들 것”

최상열(60·사법연수원 14기) 광주고법원장 취임과 윤성원(55·17기) 광주지법원장이 13일 취임했다.

최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고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구성원들의 슬기를 모으면 머지않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개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행정정은 법관과 직원 위에 군림하고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과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예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광주고등법원 사법행정 목표를 그 본래 취지에 따라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두고,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사법행정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상열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

사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 2012년 2월 광주지법법원을 떠난 지 6년 만에 돌아와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윤 지법원장은 “법원의 직무는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



최상열(왼쪽) 광주고법원장과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이 13일 취임했다.



윤성원(오른쪽) 광주지법원장이 13일 취임했다.

로, 이는 좋은 재판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고 좋은 재판은 좋은 법원에서 나올 수 있다”며 “좋은 광주지법법원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지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지난 2010년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2011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 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정동) Tel. 063-835-4771